

국제경쟁력 강화 위해 영어 상용화(常用化) 해야

왜 영어 상용화인가?

- 영어가 국제어로 정착된 지금 시민들의 영어구사 능력은 서울의 국제경쟁력과 세계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의 하나임
 - 영어구사 능력의 향상은 세계인이 되는 지름길로서, 국제화의식 제고와 외국인과의 의사소통 원활화로 서울의 비즈니스 마케팅(business marketing)과 인 바운드(in-bound) 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함
 - 서울 시민과 공직자들이 외국인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영어구사 능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해외 투자유치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영어 능력 차이에 의한 사회/경제적 격차의 해소 필요
 -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취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영어실력에 따른 소득격차를 가져오는 바, 이러한 잉글리쉬 디바이드(English divide)의 심화는 계층간의 소득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악순환과 불평등구조를 가져오게 됨
 - 이와 같이 경제적 능력에 따른 영어교육의 불평등(고소득 계층의 조기 유학이나 영어 강습 등)을 시장에서의 민간차원의 영어교육을 통해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며, 민간의 이러한 분위기를 공공부문에서 수용해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서울을 세계도시, 동북아 중심도시로 만들고 영어능력 차이에 의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서울 시민의 영어구사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영어 상용화(常用化, everyday use)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아야 함

* 여기에서 영어 상용화(常用化)란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일상생활과 업무수행에 있어 영어를 부담없이 자유롭게 항상 활용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영어를 공용어(official language)로 사용하는 것과는 구별됨

서울시민의 영어 구사 능력에 대한 평가

- 현재까지 서울시민의 영어 구사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엄밀한 조사나 비교 연구는 없으나, 간접 평가해본 결과로는 다음과 같이 매우 취약한 수준임
 - 전국경제인연합이 2003년 실시한 ‘주한 외국기업 임직원대상 생활여건 실태조사’에서 한국인의 영어소통 능력에 대한 불만이 많이(56.7%) 지적되었음
 - 정치경제위험컨설팅(PERC)회사(싱가포르 소재)가 아시아 12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외국인의 영어 소통이 가장 힘든 나라로 한국을 지목한 바 있음
 - 지난 해 ‘동북아 금융중심지로서의 서울의 잠재력’이란 맥킨지 보고서에서는 외국투자유치를 위해 서울시민의 영어구사능력 향상이 급선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서울시민들 자신이 평가한 영어활용 능력, 특히 회화 능력 또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서울시가 2003년말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어활용에 대한 서울시민 여론조사’에 의하면, 본인의 영어회화 능력이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거의 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74.2%에 이룸
 - 그리고 절대다수의 시민들은 영어회화 능력 향상(87.1%)과 서울시의 영어권장 시책이 긴요(91.6%)하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영어권장 시책에 반대하는 비율은 7.6%(76명)에 불과하였음

- 한편, 서울시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65.9%가 이수할 의향이 있고, 인터넷을 통한 무료 영어교육은 58.7%가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서울이 국제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 서울시가 해야 할 시책을 물어본 결과, ‘시민들의 영어회화 능력 향상’(76명)이 ‘교통문제의 해결’(74명), ‘시민의식의 향상’(60명), ‘기초질서의 확립’(54명), ‘외국인에 대한 친절’(53명), 그리고 ‘환경문제의 개선’(42명) 보다 더 많았음

영어 공용화 추진의 성공 및 실패 사례

- 싱가포르는 1956년 이래 이중언어교육정책(Bilingual Education Policy)을 통해 영어를 공용어로 하였음
 - 학교교육의 전 과정에서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선택하도록 하였고, 행정과 경제 분야에서는 영어를 공식언어(official language)로 사용함
 - 영어를 공용어화한지 40여년이 지난 2000년 현재 15세 이상 시민의 약 71%에 의해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싱글리쉬(Singlish)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표준영어 사용을 권장하고 시민들의 영어구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999년부터 ‘좋은 영어 말하기 운동’(SGEM: Speak Good English Movement)을 실시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영어와 중국어 등을 공용어로 채택하고 제2의 싱가포르가 되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제주지역에 대한 영어의 제2공용화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제주도, 그리고 도내의 각종 단체 사이에 찬반 논쟁만 벌인 채 결론없이 무산됨

-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면서, 외국인의 자유왕래와 의사소통 촉진을 위한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필요한 경우 영어로 된 문서를 번역없이 관공서에 제출하도록 시도함
- 또한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에 특례를 인정하여 제주도의 공용문서부터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행정문서 외 공공표지판, 각종 행정자료도 영어 병기를 할 예정이었음
- 그러나 현재까지 영어의 제2공용화는 물론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려는 어떠한 노력도 성공적이지 못하고 그 실적 또한 전무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제주도의 영어공용화 실패 사례에서처럼 실행주체의 문제, 시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와 같은 문제가 서울시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

영어 상용화를 위한 서울시의 대책

- 영어를 제대로 사용하고 영어활용 능력을 극대화하면서도 시민들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용화보다 상용화(常用化)를 선행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일상생활과 대화를 영어만으로 하는 영어체험마을을 조성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생활하면서 실용적인 영어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함
 -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서울시가 무료 또는 저렴하게 영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에게 혜택을 주고 영어 격차를 완화하도록 함
 - 초등학교의 사회와 문화 관련 과목을 한국어와 영어로 동일하게 제작하도록 하고 한국인 교사와 네이티브 스피커가 가르치게 하여, Bilingual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외국인에게는 한국과 한국어를 교

육시키는 교재로 활용함

- 서울의 각 대학 기숙사에 영어 존(English Zone)을 만들도록 장려하고, 이를 교양영어 수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민족사관고등학교와 같이 EOP(English Only Policy) 정책을 채택하도록 장려하여 매일의 수업은 물론 일상의 대화를 영어로 하자는 운동을 시작함
- 시장에서 발생하는 영어 수요를 억제하지 말고, 시장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deregulation)해야 함
- 외국어(영어) 전용학교 설립을 자유화하고 일반 학교와 외국어 전용 학교 졸업자의 불평등을 없게 하며, 입학할 학교의 선택도 시민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함. 이러한 규제 완화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 유학을 가거나 과도한 과외비를 지출하는 경제적 낭비를 줄일 수 있음
 - 외교관이나 외국지사로 발령받아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때 자녀의 교육문제가 큰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외국어 전용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영어로 대학입학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함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의 영어 상용화

- 영어는 선진 기술과 세계적인 식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국제어로서, 영어 능력의 향상은 그 자체가 수단의 성격을 띠며 목적이라 볼 수 없음
- 따라서 영어를 상용화 한다고 해서 민족혼을 잃어버린다거나 언어 제국주의에 노출된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며, 영어 활용에 있어 보다 실용주의적인 노선을 택할 필요가 있음
 - 우리의 언어문화를 고려함과 동시에 영어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거부감을 줄이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문화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함

- 서울시가 추진하는 영어 상용화 시책들은 지금부터 추진하여도 한 세대 이상은 지나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서울시의 영어 상용화 추진 시책들은 시민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시민 대상의 수요 조사를 선행하여야 할 것임
 - 세계인들이 한국적인 것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므로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수출이 필요한 바, 영어 상용화가 그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임. 한국적인 것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는 영어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함
 - 시민들 개개인 입장에서 보면, 한 가지 언어만을 구사할 수 있는 것 보다는 두어가지 언어를 능숙하게 할 수 있다면 더 윤택하고 양식있는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서울의 국제금융거점 도시화와 외자유치의 활성화, 그리고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선 사업과 시책이 요구됨
- 특히 외국인이 편리하게 살고 사업할 수 있는 여건으로 언어소통의 원활화, 영어사용 인력의 확충, 그리고 시민 및 공직자의 영어구사 능력 향상이 긴요함
 - 국경없는 경제전쟁에서 이기고, 인적/물적 교류가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익을 제대로 챙기기 위해서는 제1의 국제어인 영어경쟁력 향상이 우리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해야 함

이종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마케팅연구센터장
jglee@sdi.re.kr